

I776 INSTITUTE

Newsletter

1776연구소 정기소식지 |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157, 1106호 (선유도역 8번 출구) 홈페이지 www.1776.or.kr 이메일 1776institute@gmail.com

지난달 연구소 동정

황성준 위원 「스파이의 세계」 특강

지난 5월 7일과 14일(목), 「스파이의 세계」를 주제로 황성준 자문위원의 특강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은 대중매체 속에 소비되는 스파이의 이미지 넘어, 실제 국가별 정보기관의 역할과 현대 첩보전의 실체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강연에서는 첩보 활동의 핵심 개념에서부터 정보기관의 기본 임무와 정보수집 방식 등이 폭넓게 다루어졌다. 특히 국가별 주요 정보기관들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대표적 첩보 사례들을 함께 살펴봄에 국가안보와 국제정치 속 정보전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 합산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되었다.



서울 역사탐방: 명동편

지난 19일(화), 자유역사포럼과 함께 '서울 역사탐방: 명동편'을 진행하였다. 이번 탐방은 서울 도심 곳곳에 담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흔적과 역사적 의미를 직접 돌아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영락교회와 명동성당, 그리고 중국대사관 일대와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을 함께 탐방하였다. 특별히 영락교회에서는 박명수 서울신대 명예교수님의 설명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혼란과 폐허 속에서 한국교회의 재건과 사회 통합에 큰 역할을 감당했던 한경직 목사와 영락교회의 역사적 의미에 주목하였다. 참석자들은 영락교회가 단순한 종교 공간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반공, 그리고 전후 한국 사회 재건의 중요한 현장이었다는 점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조평세 대표 「미국 헌법의 천재성」 특강

지난 25일(월), 조평세 대표의 「미 독립 250주년 특강: 미국 헌법의 천재성—1787년 필라델피아의 위대한 타협」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미국 헌법이 지닌 제도적 탁월성과 헌정 설계의 원리를 조명하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 하나의 헌정 질서를 세워 나간 미국 건국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다. 특히 미국 헌법의 핵심 정신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전제한 보수주의적 인간 이해 위에 세워져 있음을 다루었으며, 또한 헌법 제정 논의가 난항을 겪던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하나님께 기도를 제언하고 이후 논의가 진전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짚어보며, 미국 국부들이 모든 자혜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자 했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특강은 온-오프라인 합산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과 토론 역시 활발하게 이어지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대표 인사말

광화문 광장에 새로 설치된 '감사의 정원' 가 보셨나요? 개관 일주일 만에 방문객이 1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아마 5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도 6.3선거 결과에 따라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방문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6월 16일 자유역사포럼과 1776연구소가 함께 주최하는 '서울 역사탐방: 광화문편'에 함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은 6.25전쟁 발발 말고도, 마그니카르타 서명, 2차 세계대전 D-Day, 천안문 학살, 레이건의 브란덴부르크 연설, 6.3정읍선언 등 '자유문명사'에 있어 중요한 기념일이 많습니다. 뉴스레터 뒷면의 'June, in the History of Liberty'를 참고해보세요. 히브리어에서 과거는 '앞'에 있다고 표현하고, 미래는 '뒤'에 있다고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말에도 어제와 오늘은 있지만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은 소실되었다고 하지요? 보이지 않는 장래를 앞에 두고 막막히 나아가는 것보다, 이미 지나온 뒤에 '보이는' 역사를 바라보고 겸허히 뒷걸음쳐 내딛는 것이 큰 지혜라고 여겨지는 요즘입니다.

미국 독립 250주년 이 다가오는 만큼 '1776'연구소 대표로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의와 원고 요청도 많고, 무엇보다 6월 말에 떠나는 견미단 일정으로 참 분주하네요. 한편으로 정작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는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너무 썰렁하게 지나가는 건 아닌가 아쉽기도 합니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견미단 경비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6월 1일부터 1776연구소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합니다. 선유도역(9호선)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지금보다 조금은 더 넓은 공간이니 언제든 편하게 오셔서 공부방, 사랑방으로 자유롭게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소식은 미국 현장에서 전하겠습니다!

조평세 올림

June, in the History of Liberty

- 6월 3일 (1946)** 이승만이 남순순행 중 정읍에서 '이승만 독트린'으로 평가받는 '정읍선언'을 한 날이다. "이제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아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 6월 4일 (1919)** 미국 의회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미국 헌법 수정 제19조를 가결했다.
- 6월 4일 (1989)**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수주간 민주화와 부패 척결,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던 대학생과 시민들을 중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 유혈 진압했다. 최소 수천 명에서 최고 만 명까지 죽임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6.4', '64', '8964' 같은 숫자 조합에 대한 인터넷 검색 SNS 게시글을 즉각 차단하고, 심지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5월 35일'(5월 31일 + 4일), '8의 제곱'(8x8=64), 'VllV'(로마자 6과 4) 같은 우회적 표현들까지 모두 감지하여 차단한다. 더 나아가 64위안, 8964위안 등 해당일을 연상하게 하는 금액의 모바일 송금(위챗페이 등)까지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 6월 4일 (1989)** 동유럽 공산권 국가 중 최초로 자유노조(Solidarność)가 참여한 복수 정당제 자유 선거가 치러졌다. 이 선거에서 자유노조가 압승을 거두며 동유럽 공산 정권 붕괴와 냉전 종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 6월 5일 (1783)** 몽골피에 형제가 프랑스 아노네에서 최초로 열기구 비행에 성공하며 항공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 당시 독립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 파리에 머물던 벤자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훗날 미국의 2대 대통령), 그리고 애덤스의 아들이자 훗날 6대 대통령이 되는 16세 존 퀸시 애덤스가 이를 직관했다. 당시 비행을 구경하던 한 프랑스 시민이 "하늘을 나는 풍선 따위가 대체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고 중얼거리자, 프랭클린은 "갓 태어난 아기는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는 재치있는 응수를 남겼다.
- 6월 5일 (1947)** 조지 C. 마셜 미국 국무장관이 하버드대 졸업식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유럽의 재건을 위한 대규모 경제 원조 계획을 제안했다. 이 원조는 서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 6월 6일 (1944)** D-Day로 알려진 이날,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 서유럽 해방의 서막을 열었다.
- 6월 12일 (1776)** 미국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다"는 권리 장전을 채택했다. 이 문서의 핵심 정신은 곧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의 모태가 되었다.
- 6월 12일 (1987)**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서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소련의 고르바초프 서기장을 향해 "이 장벽을 허무시오(Tear down this wall)"라고 외쳤다. 자유 진영의 결속을 다지고 냉전 해체를 압박한 상징적인 연설로 꼽힌다.
- 6월 15일 (1215)** 영국 국왕 존이 마그나카르타 리버타툼(자유의 대헌장)에 서명하여 국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 6월 18일 (1815)**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벨기에 워털루 근처에서 나폴레옹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며 그의 통치를 종식시키고 유럽 정치 지형을 재편했다.
- 6월 19일 (1865)** 남북전쟁 종식 후 미국 텍사스 갤버스턴에서 마지막 노예가 마침내 해방되었다. '준틴스'라는 이름으로 기념된다.
- 6월 24일 (1948)** 소련이 서방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서베를린으로 통하는 모든 육로와 수로를 차단했다. 이에 맞서 미·영 연합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베를린 공중수송(Berlin Airlift)'을 감행하여 자유를 지켜냈으며, 이는 냉전 체제를 굳히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 6월 25일 (1950)**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 6월 29일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서해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에 맞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서해를 사수했다. 이 과정에서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상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등 6명이 전사했고 19명의 장병이 부상당했다. 당시 2002 한일 월드컵 축제 분위기에 더해 김대중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이 사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전투가 아닌 우발적 충돌이라는 위암스의 '서해교전'으로 명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야 공식 명칭이 '제2차 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사건 이후 군은 기존의 5단계(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조준사격-격파사격) 수칙을 3단계(시위기동-경고사격-조준사격)로 단순화하여 선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주목할만한 뉴스 / 칼럼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법치 파괴 폭주 (국민대 이호선 교수)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해왔습니다. 재판소원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외범죄 관련 개정이 핵심 골자입니다. 이에 더하여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른바 입법 독재 시리즈의 정점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대학교 법대 학장을 역임한 이호선 교수를 커버스토리에 초대했습니다. 이 교수는 현재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

6월 연구소 동정

6.3 정읍 선언 80주년 기념 학술대회

6월 5일(금),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선언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 조평세 대표가 논찬자로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흔히 '정읍 발언'으로 축소·평화되어 온 정읍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해방정국 속에서 이승만이 제시했던 독립외교와 자유민주주의 건국 노선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된다. 행사는 5일(금)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진행된다.

건미단 3기 발대식

6월 6일(토), <건미단 3기 오리엔테이션 및 발대식>이 경기도 광주 히스토리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미국 현지 일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며, 건미단의 취지와 방향성을 함께 이해하고 건미단원으로서의 사명감과 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또한 미국 현지 탐방과 학습을 보다 깊이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6월 13일·20일·27일(토)에는 파견 전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복협 <기독교인의 전쟁관> 발표

6월 12일(금),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회에서 조평세 대표가 '기독교인의 전쟁관'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와 중동 지역의 갈등을 배경으로, 기독교인들이 전쟁과 국제 분쟁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성경적으로 조명한다. 월례회는 12일(금) 오전 7시, 영락교회 50주년기념관에서 진행된다.

서울 역사탐방: 광화문편

6월 16일(화), 자유역사포럼과 함께 하는 '광화문 투어'가 진행된다. 이번 탐방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감사의 정원, 서울역사박물관, 새문안교회 역사박물관 등을 차례로 탐방하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그 가운데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걸어온 역사의 흔적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건미단 3기 출국

6월 28일(일), 건미단 3기가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역사 탐방의 여정을 시작한다. 이번 3기에는 총 42명의 건미단원이 함께하며, 미국 건국의 현장을 직접 탐방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보수주의의 뿌리를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 2026년 여름, 미국 땅에서 42명의 '리를 이승만'이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5월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은	김○애	김○직	도○현	박○주	손○은	이○빈	정○교
고○영	김○연	김○진	만○학교	배○호	안○문	이○수	정○솔
권○운	김○연	김○희	문○아	배○센터	양○진	이○운	정○실
권○현	김○은	김○희	민○빈	변○연	오○철	이○은	정○아
김○	김○은	김○희	민○환	살○나비	원○슬	이○창	정○용
김○수	김○종	나○원	박○기	서○민	유○원	임○정	정○용
김○수	김○주	남○현	박○기	서○현	윤○옥	임○조	정○원
김○애	김○준	노○스터	박○민	손○광	이○란	장○	정○혜

후원 안내



DONATE NOW

월 3원 원 이상 정기 후원 시
1776연구소 굿즈를 매 분기 보내드립니다.
(문의: 010-5949-1776)